

# 독도 보고서

접 수 번 호	
학 교 명	부여고등학교
동아리(팀)명	내 이름은 독도야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팀명은 "내 이름은 독도야"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유신들은 "독도"보다 "다케시마"라고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사민을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해외에서도 "다케시마"라 불리지 않고 "독도"로 불리도록,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하기 위해 독도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같은 " 내 이름은 독도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 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규태	2학년	연락 및 활동 장소 주선
2	노희남	2학년	동아리 활동 내용 기록 및 예산 관리
3	정보근	2학년	자료검색, 사진 촬영 담당
4	조성민	2학년	자료검색, 제작 및 구성
5	조장환	2학년	보고서 작성, 팀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독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며 자긍심 함양

- 주제 선정 이유 :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여러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다만 지정된 독도의 날의 경우, 국가적으로 크게 영향력 있는 날이 아니며 심지어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으로 추가되어 학생들이 학습하는 독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짧고 중간,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정도의 인식뿐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독도 지식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을 주기 위해 만든 단순암기를 이용한 일회성 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독도를 글로만 접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독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없게 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올바른 지식 함양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독도 경시대회를 앞두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주목하였고, 직접 팀원을 꾸려 한국 국민을 상대로 불가능하다면 학교에서라도 조금이나마 학우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얻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반으로 학교 학우들이 독도에 대한 지식등을 기초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도의 기본적인 지식 갖추기"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 기간** : 2018.05.07 - 2018.08.15

○ **추진 방법** : 학교 내 독도 동아리에서의 금전적 지원을 일부 이용하였고 독도의 기초적인 학습 내용 위주로 구성하여 팸플렛, 로드맵을 작성하고 배포. 학교를 비롯한 부여군 관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05.07	독도송 가사 개사하기	부여고등학교	독도송의 잘못된 가사를 개사하고, (10~30) 연령별 노래 불러보며 잘못된 독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 조정
2018.05.12	석고로 독도 만들기	부여고등학교	석고로 독도 모양을 제작하며 독도를 자주 접하며 독도에 대한 인식 유지하기
2018.06.08	독도 동식물 로드맵 만들기	부여고등학교	독도에서 서식하는 동물 및 식물 로드맵 작성으로 독도의 기후 및 지리적 요소 학습하기
2018.06.20	독도 영토 주장 서명운동	부여고등학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영유권에 대한 자긍심 함양하기 위한 서명운동

2018.07.21	독도 영토 주장 서명운동	부여군 관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영유권에 대한 자긍심 함양하기 위한 서명운동
2018.08.13	독도 팜플렛 만들기	부여고등학교	독도 팜플렛 만들기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독도 팜플렛	사진	독도 동식물 로드맵, 독도는 우리땅 가사개사, 교통수단을 주제로 한 팜플렛
2	독도 영유권 서명 운동	사진	독도 영유권 서명 운동(부여군 관내, 부여고등학교)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짧았지만 석고로 독도모형 제작하기(2018.05.12.), 독도 동식물 로드맵 만들기(2018.06.08.), 독도 팜플렛 만들기(2018.08.13.), 독도송 노래 개사하기(2018.05.07)을 진행하면서 팀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학우들도 독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며, 좀 더 많이 독도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독도에 관한 자긍심 또한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서명운동(2018.06.20. - 2018.07.21.)을 진행하며 학교 내, 부여군 관내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국토수호 의지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향후 계획

이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팀명 선정 이유인 대내외적인 독도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이 매우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스로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회 이후에도 이루지 못한 활동 계획들을 하나씩 고쳐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규태	짧은 시간동안 독도 체험을 하면서 독도가 다시 한 번 우리의 땅임을 알게 되었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노희남	제가 느끼기엔 짧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친구들과 독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 독도에 관하여 모르던 내용도 알게 되고, 학생으로서 독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어 뿌듯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본분 때문에 활동에 모든 것을 쏟지 못해 아쉬웠고 하고 싶은 내용도 다 하지 못해서 아쉽다. 대회 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땅 독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학교뿐만 아닌 세상에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볼 것이다.
정보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조원들과 활동내용을 구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독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성민	독도 팸플렛 제작 및 구성의 역할을 맡아서 자료조사하면서 독도의 다양한 식물과 독도의 생물 개체수를 보면서 독도가 우리들이 지켜내야 하는 사명감과 우리가 끝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장환	짧았지만 몇몇 학급 친구들이 독도에 관심을 보이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유지하고 있음에 다행스러웠습니다. 저와 팀원들도 독도에 대해 모르던 내용들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진행 중인 독도 홍보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성행하지 못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아쉽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회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개개인이 국토 수호 의지를 함양한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초기에 설정한 활동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활동내용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면 혹은 오지 않더라도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